

先 중단차원 정책 마련 後 정부와 개선안 논의

사찰표적감사 '우려'...대책위 첫 회의

위원장에 돈관스님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중단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본사 단위에서 불사를 심의하는 기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문화재 보수 및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찰을 표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던 조계종이 중단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교구본사주지 협의회 회장 돈관스님(은혜사 주지·사진)을 위원장으로, 문화부장 해일스님을 간사로 추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 보수 실태 조사에 대한 현황 보고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스님들은 "이번 기회에 중단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중단 차원의 정책

하지만 사찰 표적감사에 대한 우려는 계속됐다. 스님들은 "문화재 보수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문화재 보수 실태 조사의 추이를 지켜보고 다음 회의에 대응책을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어현경 기자

“열정과 헌신으로 시작”

나선화 문화재청장 취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관리 점검 행정은 신속 정확한 협력행정체계 구축과 엄정한 감리제도 마련 및 전국 문화재 점검 상태의 DB 구축, 지자체 외부전문가, 전문가, 전국각지의 다양한 문화재 관련 공동체와의 협업체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사진)이 지난 12월2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나선화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조사연구·가치개발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문화재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며 "모든 일에 투명하고 정확하며, 바른 잣대를 사용하여 손상된 문화재청의 신뢰를 회복하여 새로운 문명기에 대한민국이 문화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과 헌신 있는 새로운 시작을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불교신문 법보시, 감사합니다”

사찰 불자들 동참, 80여 곳에 '희망' 전해 교도소, 병원법당 등서 '답례' 편지 잇달아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에 대한 교도소와 병원법당 등의 감사 편지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인하대병원 불교법당에서 본지를 활용해 환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

‘한장의 불교신문 한사람의 포교 사’라는 슬로건으로 본지가 추진하고 있는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에 대한 감사 편지가 이어지고 있다. 교도소와 병원 법당 등 상대적으로 불교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곳에서 본지의 법보시 운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어 ‘고맙다’는 편지들이었다.

최근 인하대병원 불교법당은 본지 법보시 운동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법보시로 도움을 받아 병원 포교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인하대병원 불교법당 무량

심 보살은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인하대병원의 많은 환우 및 불자 분들께 부처님 말씀을 나눠드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병원 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구교도소 내 불교법당인 광명사 불교회장을 맡고 있는 이범옥 씨도 연하장을 보내왔다. 이범옥 불교회장은 “올 한해 귀사(불교신문)에서 보내주시는 간행물로 이웃 범우들과 함께 수행 정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이곳 범우들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고 고

마음을 나타냈다. 최덕수 창원교도소 수용자 불자회장도 본지에 보내 온 감사편지를 통해 “불교신문과 인연 맺으신 한 분 한 분 보살도를 이루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해 2월20일부터 이

웃과 현장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신문을 법보시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월6일 현재 본지는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동참으로 전국 교도소 48곳과 병원 법당 34곳 등에 총 1430부를 법

보시하며 불법을 흥포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신문 사장 성직스님은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은 교도소나 병원 등 열악한 곳의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법보시 동참은 또 하나의 불자를 만드는 일이자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며 사찰과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종교계 역할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총무원장 스님, 철도노조 부위원장 격려



총무원장 자승스님(오른쪽)이 지난 12월30일 조계사에 피신 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만나 격려했다. 신재호 기자

여야와 철도노조가 국회에 철도발전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할 합의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철도 파업 문제로 조계사로 피신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만나 격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2월 30일 조계사 극락전 2층을 방문해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조합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호법부장 원명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사회국장 해만스님 등과 함께 박태만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생이 많다. 하루속히 원만히 해결되어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면서 “오늘 종교계 대표자들이 모여 상의를 하려 했으나, 상황이 급변하면서 신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종교계 차원의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여러분의 뜻이 잘 이뤄지기를 기도하겠다. 계시는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기도 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갑자기 (조계사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송구하고 감사드립니다”면서 “조금 전 김명환 위원장도 통화했는데 꼭 감사하다는 말을 총무원장 스님께 전할게 달라고 했다”고 종단과 조계사

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박태만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계사에 들어온 건 개인적으로는 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매일 극락전에서 함께 숙식하며 위로해준 총호스님(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철회와 관련해서도 “양보와 소통을 통해 민영화 문제를 풀

고 철도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철도민영화라는 국민적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파업 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박태만 부위원장은 당분간 조계사에 머무를 전망이다. 박 부위원장은 철도노조 내부 회의 및 총회 결과에 따라 향후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어린이포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하영 기자의
현장에서
hykim@ibulgyo.com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이 이달 중에 미국으로 순회공연을 떠난다. 창립 20주년과 미주 전법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아이들의 음성공양이 미국 곳곳에서 울려 퍼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뚫듯하다. 특히 이번 연주회 공연장 중에 한 곳은 교회라고 알려지면서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합창단은 이번 공연을 위해 매주 주말을 이용해 연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번듯한 연습장이 아니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프로그램실을 사용한다. 그러나 복지재단이 적극 지원을 해줘 별도의 비용 없이 연습할 수 있다고 합창단 측은 고마워했다. 또 단원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

집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찰 어린이법회를 통해 단원을 찾는데 법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한다.

또 다른 어려움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합창단은 무용도 함께 하는데, 무용을 기획하고 구성해줄 ‘불교’ 안무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안무가는 있

지만, 대부분 교회에 소속돼 있거나 타종교인들이 많아 막상 의뢰를 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합창단 측의 전언이다.

수행과 포교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일컬어지며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처럼 어렵지만 하다. 화려한 말잔치에 매몰되지 말고 정말 실천해야 할 때다. 포교, 특히

어린이포교는 장기적인 투자가 기본이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찰과 스님들이 외면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장 20년 후, 아니 10년 후만 바라봐도 어린 세대들의 바탕이 없는 미래의 불교는 암울하기 짝이 없다.

어린이법회를 활성화하고 문화포교의 장을 세우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은 스님과 사찰, 종단이 100년 단계를 세우 추진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2014년도

범어사울학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범어사에서는 부처님의 계율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여 조계종단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다변화 하는 현실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윤리적 기준을 제시할 전통 율학과 시대정신을 아우르는 중현중범에 정통한 청정 율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불기2558(2014)학년도 금정총림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인원** 비구 0명
- 응시자격** 기본교육기관 졸업 및 비구계수계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수행이력서 1부
 - 승려증 사본 1부
 -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보건소제외) 1부
 - 반명함판 사진(3×4) 3매
 - 자필추천서(은사, 강주스님 등)

- 접수기간** ~2014년 2월 10일(월) 까지
- 원서교부** 범어사 중무소, 범어사 홈페이지(www.beomeo.kr)
- 원서접수** 범어사 중무소(교무담당)
-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 전형일시** 추후 개별 연락
- 문의** 051)508-3122 (범어사중무소 교무담당)
051)508-2171 (범어사율학승가대학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 금정총림 범어사율학승가대학원 원장 수진